

# Weekly Strategy & Economy

‘중국 경기둔화’ 전망, 바뀔까?

2013. 7. 22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마주옥  
02) 3787-5025  
majuok@kiwoom.com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키움증권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1. 주간 증시: '중국 경기둔화' 전망, 바뀔까?	3
2. 국내외 주요 이슈: 중국 경기의 항방은?	4
3. 주간 경제 전망: 미국 주택시장 회복 지속	6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약세	8
5. 수급동향: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이동	10
6. Earnings & Valuation: 낮아진 실적 기대감	11
7. 해외 증시 동향	12
Chart & Table	13

## '중국 경기둔화' 전망, 바뀔까?

### >>> 국내증시, 박스권 등락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1,850~1,900pt).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은 진정되고 있음. 또한, 미국의 7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급등하는 등 경기개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중국의 2/4분기 GDP가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 그러나, 외국인의 매매동향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결국, '중국의 경기는 둔화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기 힘들.

### >>> 중국 경기의 항방은?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긍정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소순환 흐름 속 경기 저점에 진입했으며 하반기에는 완만한 성장을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CPI와 PPI가 동반하락하는 가운데 CPI-PPI Spread가 역사적 상단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Cost의 충분한 하락이 경기둔화를 저지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냄. 한편 주말 인민은행은 대출금리 조절 자율화를 발표. 이러한 조치는 경제전반의 Cost를 하락시키는 조치로서 하반기 중국 경기의 반등에 기여할 것.

### >>>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이동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수급상황과 관련해 주목할 현상은 우선 미국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금리의 급등과정에서는 채권 및 주식시장이 동반 자금유출 현상을 겪었지만, 향후 금리의 완만한 상승세 속에서는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한편 주목할 부분은 구리에 대한 솟 포지션이 역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는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Peak를 형성했음을 시사.

# 1. 주간 증시: '중국 경기둔화' 전망, 바뀔까?

## >>> 국내증시, 박스권 등락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1,850~1,900pt).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은 진정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7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급등하는 등 경기개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중국의 2/4분기 GDP가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매동향은 큰 변화가 없다. 결국, '중국의 경기는 둔화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과연 '중국 경기둔화' 전망이 변화할 수 있을까?

한편, 21일의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의 주인이 가려진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미 중의원(하원) 480석 중 과반수인 325석과 참의원 59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63석을 추가한다면 상원과 하원 동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다음 선거가 예정된 2016년까지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할 수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연립 여당의 참의원 과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아베노믹스'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엔/달러 환율의 하락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국내 대형 수출주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정은 단기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본정부가 '추가 양적완화'보다는 개혁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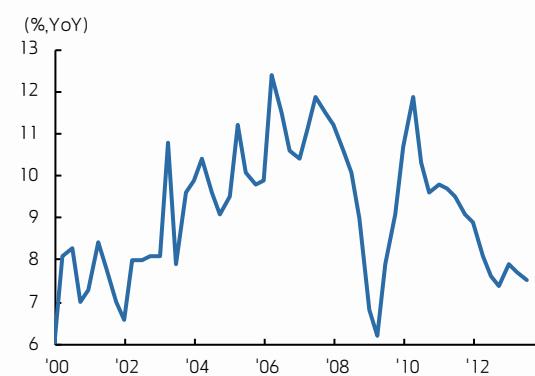
지난 19일 인민은행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오는 20일(토)부터 대출금리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대출금리 규제 철폐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자금 배분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실물경제를 부양하고 경제의 구조개혁과 도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조치는 지난 주말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및 호주달러 강세를 견인했다. 또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vs ISM 제조업지수



자료: Philadelphia Federal Reserv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중국 GDP 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 통계청

## 2. 국내외 주요 이슈: 중국 경기의 향방은?

### >>> 중국 경기, 소순환 흐름 속 저점수준에 진입 판단

중국 2/4분기 GDP는 7.5%를 기록했다. 이는 2분기 연속 하락한 결과이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으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긍정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소순환 흐름 속 경기 저점에 진입했으며 하반기에는 완만한 성장을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다.

#### 중국 CPI-PPI Spread vs 경제성장률



우선 경기의 바닥은 충분히 하락한 Cost가 발판이 되는데, 현재 PPI는 -2.7%를 기록 중이고, CPI-PPI Spread가 향후 경기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 경기는 CPI-PPI Spread가 4%pt 선을 상회하는 구간에서 전환이 나타났다. 2002년과 2009년에는 CPI-PPI Spread가 4%pt 선에 근접 혹은 상회하자 경제성장률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고점에서 둔화되기 시작했다. CPI-PPI Spread는 경제전반에 걸친 Yield와 Cost의 차를 시사하는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

#### 중국 CPI, PPI vs 경제성장률



CPI와 PPI가 동반하락하는 가운데 CPI-PPI Spread가 역사적 상단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Cost의 충분한 하락이 경기둔화를 저지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CPI와 PPI가 동반상승하는 환경에서 CPI-PPI Spread가 역사적 상단까지 상승했다면, 이는 경기호조로 전반적인 마진이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든 정도로 좋은 상황이며, 역설적으로 향후 경기둔화가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기 변곡을 시사하는 CPI-PPI Spread 수준 및 시차는 다르지만, 경기에 선행하는 경향은 일반적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CPI-PPI 스프레드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약 3개월 선행하고 있다.

한편 주말 인민은행은 대출금리 조절 자율화를 발표했다. 기존 대출금리 하한선은 기준금리의 0.7배였는데, 이를 철폐하고 할인율 규제도 철폐했다. 반면 대출금리 상한선은 기존의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의 금융완화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전반의 Cost를 하락시키는 조치로서 하반기 중국 경기의 반등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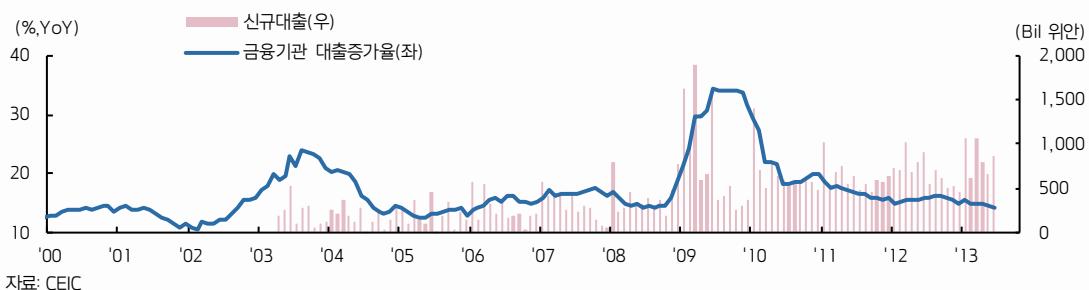
그렇다면 중국 정부정책의 스텐스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지난 주 리커창 총리는 경제지표 때문에 정책 방향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으며, 어렵게 만들어낸 구조조정 기회와 효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발언하며 장기 구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올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일련의 중국 정부인사들의 발언과 조치들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투자중심의 산업화 단계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전환단계에서 성장률 둔화는 필연적이지만, 급격한 변화는 실업 및 빈부격차 확대라는 많은 고통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은 과잉 설비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부분의 급격한 위축 역시 부담스러울 것이다.

즉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할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조절보다는 효과가 큰 지준율 인하 및 상업은행 신규대출 확대라는 총량규제 조절정책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만 경기둔화의 가속화, 특히 중소기업의 파산지속 등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주는 조치들을 선택한 것이다. 15일 마카이 국무원 부총리가 '전국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경험교류 회상회의'에서 중감회와 은감회 등 관리 당국에게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 이를 시사한다. 마카이 국무원 부총리는 중소기업 대출증가속도가 기타 대출 수준보다 낮으면 안되며, 하반기 총 대출증가율이 상반기 수준보다 낮아선 안된다고 2가지 하한선을 제시했다.

투자중심의 경제구조를 소비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기본적인 이유는 경기의 변동성을 축소시키며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10년이라는 권력기간을 가지는 중국 정치구조상 정권성립 첫해에 향후 경기둔화로 이어질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할 유인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권 이양 첫해부터 확대되는 우려 및 불안 역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 및 경제구조 개혁, 금융시장의 시장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 당초에 제시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속에 중국 경제성장률은 7.5%를 하한선으로 반등할 것이고, 그림자 금융, 경기침체 등 중국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나친 우려는 완화될 것이다. 장기적인 정책목표의 전환이 아닌 만큼 올해 성장률이 8%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소재/산업재 업종에 대한 극도의 비관론을 완화시키며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기존 성장주의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구간이다.

### 중국 금융기관 신규대출 vs 대출증가율



### 3. 주간 경제 전망: 미국 주택시장 회복 지속

#### >>> 국내 경제

##### 2/4분기 GDP, 전분기비 0.9% 증가 예상

2/4분기 경제성장률(GDP)은 시장의 예상치(0.8%)를 소폭 상회한 전분기비 0.9%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비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다소나마 회복됐을 것이다. 또한 소비와 수출 역시 소폭이지만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연간 국내 경제성장률은 2.7% 전후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경기부양책에 대한 효과 및 글로벌 경제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폭 등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관건으로 판단된다.

#### >>> 미국 경제

#####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

고용시장 개선과 저금리 정책 등이 주택시장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 6월 기준 및 신규 주택판매량은 전월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이에 따라 금리상승이 나타났다.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모기지 신청 및 리파이낸싱 등은 다소나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중국 경제

##### 인민은행, 대출금리 규제 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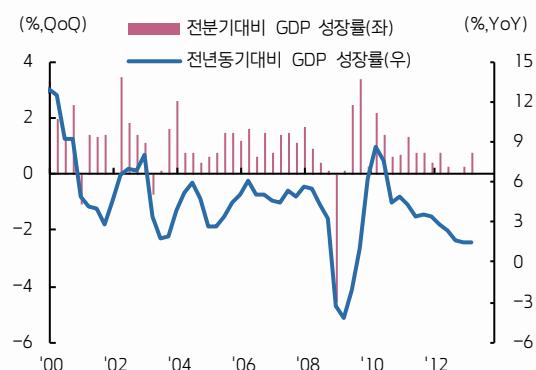
지난 19일 인민은행은 대출금리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자금배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금금리 및 모기지 금리에 대한 규제는 유지키로 했다.

####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7. 22 ~ 7. 26)

날짜	국가	경제지표	대상	중요도	전망치	이전치
7월 22일	미국	기준주택매매(SAAR)	6월	A	5.27M	5.18M
	유럽	스페인 국채만기(2억 유로)				
7월 23일	유럽	스페인 국채입찰				
7월 24일	미국	신규주택판매(SAAR)	6월	A	481K	476K
		MBA 모기지 신청지수(WoW,SA)				
	중국	HSBC 제조업 PMI(예비치)	7월 3주	B	NA	-2.6%
7월 25일	유럽	유로존 제조업 PMI	7월	B	49.0	48.8
	한국	GDP(YoY)				
		할인점 매출(YoY)				
7월 26일		백화점 매출(YoY)				
	미국	내구재주문(MoM)	6월	A	1.0%	3.7%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SA)				
	유럽	통화공급 M3(YoY)		B	NA	334K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7월 3주			
7월 27일	한국	소비자기대지수	7월	C	NA	105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유럽	이탈리아 국채입찰				

주: '중요도'는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표시한 것으로, A는 경제전망에 큰 도움이 되는 핵심 변수를 지칭.

## 국내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 국내 소비자기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 미국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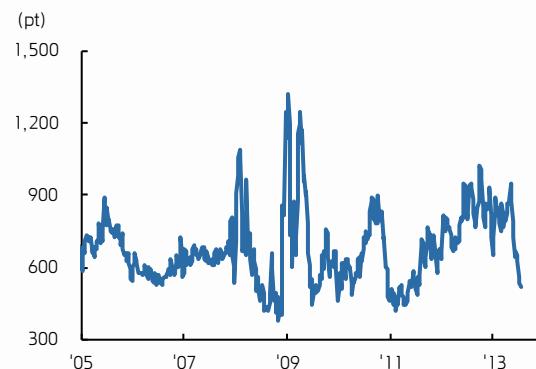
자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U.S. Census Bureau

## 미국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자료: Department of Labor

## 미국 MBA 모기지 신청지수



자료: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 유로 제조업 PMI 및 독일 IFO 지수



자료: Markit,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약세

### >>> 지난주 동향

#### 달러화,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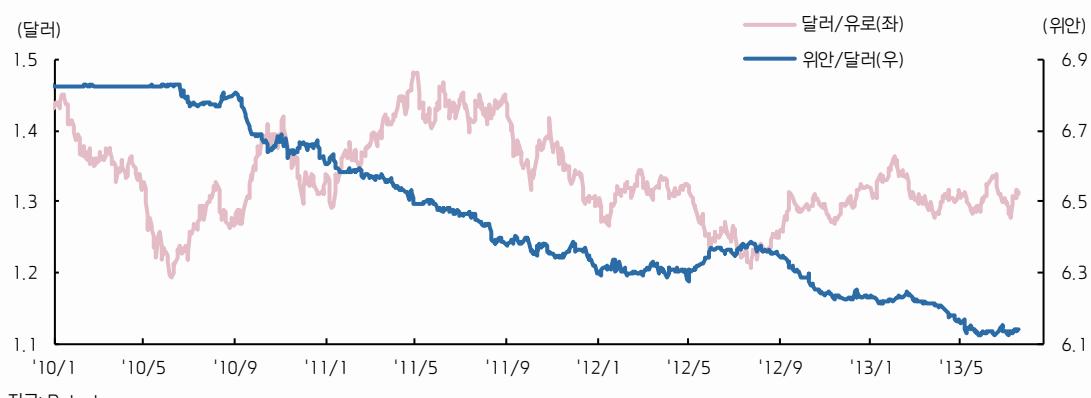
지난주 달러지수는 전주대비 0.46% 하락 마감했다. 주중 달러화는 경제지표 호조와 벤 버냉키 연준의 장의 올해 말 '양적완화 축소 시작' 발언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중 벤 버냉키 의장의 중언을 앞두고 달러화가 하락압력을 받았으며, 주말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규제 철풀에 힘입어 유로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다. 엔화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약세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예상대로 확보할 경우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0.24% 하락한 1,121.75원에 마감됐다. 주중 원/달러 환율은 중국 경제지표 호조, 네고 물량 유입, 대우조선 수주 등의 영향으로 소폭이지만 하락 마감했다. 다만 저점 인식에 따른 결제수요,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이 하락 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다.

#### 아시아 통화지수 및 달러지수



#### 유로화 및 위안화



## >>> 이번 주 전망

### 원/달러 환율, 1,110~1,140원 중심 등락 예상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110~1,140원 중심의 등락이 예상된다.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예상된다. 지난 주말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규제 철폐는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참의원 선거에 따른 엔화 약세에 대한 경계심이 나타날 것이다. 즉,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는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보다 낮은 1,110~1,140원 수준에서의 등락이 예상되나, 환율의 변동 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 최근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환율 변동률

	전주 말 7월 19일	1주 전 대비(%)	6월 말 대비(%)	2012년 말 대비(%)	7월 12일	6월 말	6개월 전	2012년 말
달러/유로	1.3143	0.58	1.02	-0.38	1.3067	1.3010	1.3321	1.3193
엔/유로	132.26	2.01	2.55	15.55	129.66	128.97	119.98	114.46
엔/달러	100.65	1.44	1.52	16.02	99.22	99.14	90.10	86.75
위안/달러	6.1385	0.00	0.02	-1.48	6.1382	6.1375	6.2181	6.2306
<b>원/달러</b>	<b>1,121.75</b>	<b>-0.24</b>	<b>-1.78</b>	<b>5.39</b>	<b>1,124.47</b>	<b>1,142.06</b>	<b>1,057.08</b>	<b>1,064.40</b>
원/100엔	1,114.51	-1.66	-3.25	-9.17	1,133.37	1,151.96	1,173.30	1,227.05
대만 달러/달러	29.96	0.17	-0.08	3.19	29.91	29.98	28.95	29.03
스위스 프랑/달러	0.9411	-0.57	-0.41	2.81	0.9465	0.9450	0.9342	0.9154
달러/호주 달러	0.9172	1.36	0.37	-11.76	0.9049	0.9138	1.0510	1.0394
<b>달러지수</b>	<b>82.61</b>	<b>-0.46</b>	<b>-0.64</b>	<b>3.56</b>	<b>82.99</b>	<b>83.14</b>	<b>80.04</b>	<b>79.77</b>

자료: Datastream

#### 원/달러 환율 vs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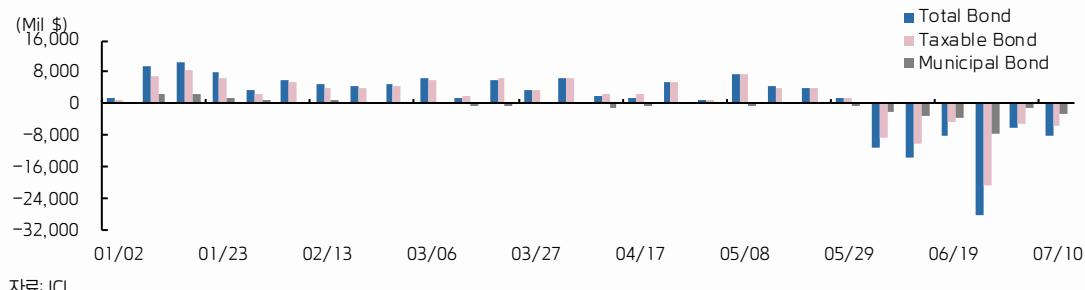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 5. 수급동향: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이동

### >>> 이머징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점진적으로 나타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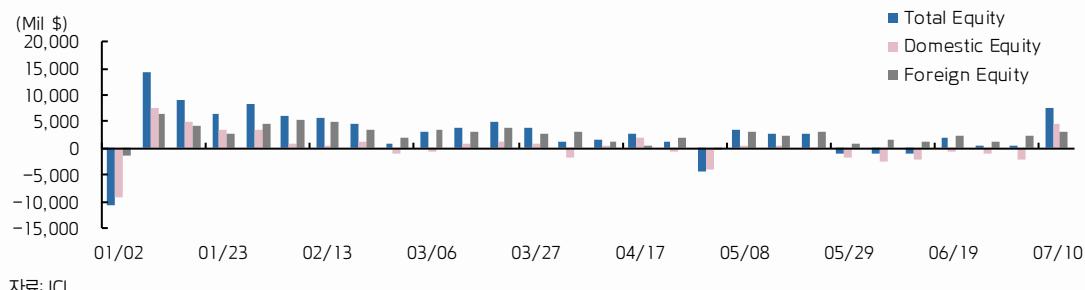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수급상황과 관련해 주목할 현상은 우선 미국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금리의 급등과정에서는 채권 및 주식시장이 동반 자금유출 현상을 겪었지만, 향후 금리의 완만한 상승세 속에서는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Fed의 시장 달래기 이후 금리 급등에 대한 반락이 나타났지만, 금리의 Rock Bottom을 확인했다는 인식이 미국 경기 회복세 속에 강화될 것이고, 채권은 마치 주식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PER 주식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목할 부분은 구리에 대한 솟 포지션의 역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Peak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중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이머징으로의 외국인 자금유입을 견인할 것이다. 특히 구리가격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상황에 선행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미국 채권형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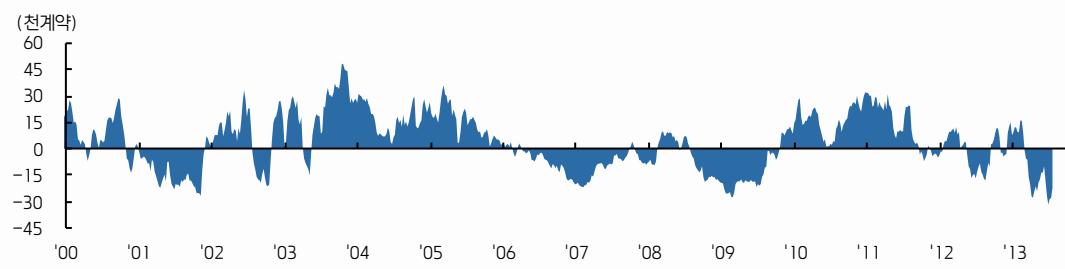
자료: ICI

####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ICI

#### 구리에 대한 투기적 순포지션 추이



자료: CFTC

# 6. Earnings & Valuation: 낮아진 실적 기대감

## >>> 낮아진 실적 추정치로 인한 Valuation 상승

지난 한 주간 2013년 2/4분기 및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0.7% 하락하였다. 삼성전자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반영된 지난 번에 비해 하락 폭은 완화되었다. 하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2/4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낮아진 모습이다.

외국인의 수급 상황 개선으로 인해 7월 중순부터 시장은 다소 상승한 반면, 하락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업 이익추정치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장의 Valuation 수준은 다소 높아진 상태로 연간 PER Band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하반기 펀더멘탈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방향성 모색 단계라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진폭은 작지만 단기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

### 업종별 기업이익 추정치 변화율

구분	2/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2013년 영업이익 추정치			PER 2013년
	1W	1M	3M	1W	1M	3M	
에너지	0.2	-16.0	-33.1	-0.3	-6.1	-15.0	12.0
소재	0.0	-3.6	-12.3	-0.2	-3.1	-10.9	12.6
금속 및 광물	0.3	-3.4	-13.2	-0.1	-2.8	-11.3	12.2
화학	-0.3	-4.0	-11.1	-0.4	-3.6	-10.4	13.0
산업재	-1.6	-9.3	-19.9	-1.9	-4.0	-14.9	15.9
건설	-2.6	-21.7	-33.6	-12.2	-20.2	-38.6	25.3
기계	3.4	-2.8	-18.9	0.0	-4.2	-18.0	131.2
조선	-6.8	-17.2	-26.7	-1.4	-6.4	-14.3	16.4
경기소비재	0.2	0.7	-0.8	0.2	0.8	-1.7	6.9
자동차	0.5	1.9	2.1	0.3	1.6	0.5	5.9
백화점	-2.3	-4.7	-5.6	-0.4	-1.4	-3.5	11.5
호텔 및 레저	0.0	2.3	-4.5	0.0	-1.3	-4.2	16.2
필수소비재	-1.2	7.5	14.9	1.7	-4.5	-9.6	17.5
금융	-2.9	-18.4	-24.6	-1.0	-10.8	-17.1	12.1
운행	-3.5	-18.7	-25.5	-1.3	-6.4	-12.4	8.5
보험	-1.6	-10.7	-17.2	0.0	-20.4	-35.8	23.4
증권	0.0	-30.7	-33.5	0.0	-36.8	-37.6	21.0
의료	0.0	-6.1	-14.5	0.0	-1.9	-11.2	28.8
IT	0.3	-6.3	-2.6	-0.1	-3.1	1.8	7.0
반도체 및 관련장비	0.3	-6.8	-3.1	0.0	-3.1	2.0	6.1
디스플레이 및 관련부품	0.8	-0.9	-1.7	-0.3	-3.0	-2.5	10.9
인터넷 서비스	-1.6	-0.2	-1.6	-0.6	-1.9	-4.4	21.3
통신서비스	-2.1	-3.3	0.7	-0.5	-1.9	0.9	10.2
유통리테일	-11.3	-258.1	-	-5.4	-14.5	-19.3	17.4
전체	-0.7	-8.3	-11.5	-0.7	-4.1	-6.3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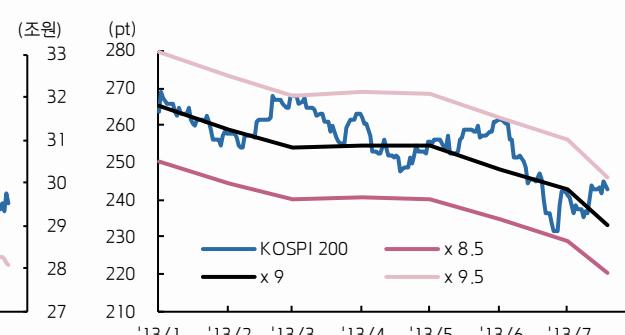
자료: FnGuide, 기움증권 KOSPI200 종목 중 지속적인 추정치가 존재하는 종목 대상

### 2/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추이



자료: FnGuide, 기움증권 지속적인 추정치 존재하는 대형주 기준

### PER Band



자료: FnGuide, 기움증권 지속적인 추정치 존재하는 대형주 기준

## 7. 해외 증시 동향

### >>> 지난 주 다우지수, 0.51% 상승

#### 경기부양 기조 유지 및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상승 마감

지난주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베냉키 의장의 경기부양 지속 발언과 제조업 지표의 개선이 투자심리 완화를 가져왔다.

17~18일(현지시간) 이틀간 베냉키 의장은 상·하원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했다. 베냉키 의장은 양적완화 축소 시기는 유동적이며, 높은 수준의 통화부양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한 주간 발표된 제조업 지표는 크게 개선되면서 증시에 탄력을 더했다. 7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5개월래 가장 큰 폭 상승한 9.5를 기록했고, 7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도 시장예상치 8을 크게 상회한 19.8을 기록했다. 6월 산업생산도 4개월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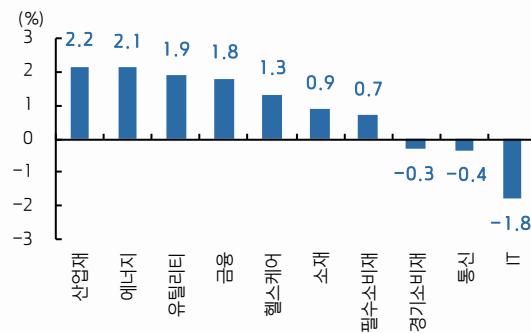
주중 발표된 2/4분기 기업실적은 대체로 개선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전주에 이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BOA 등 금융주들은 시장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술주들은 실적 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지난주 상하이 종합지수, 2.30% 하락

#### 상하이종합지수, 로우지웨이 재무부장 발언으로 시장 심리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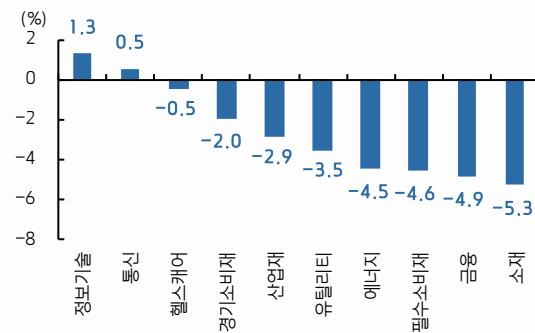
지난주 상하이종합지수는 주 초반 발표된 상반기 경제경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강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에 부합됨에 따라,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통한 온건한 성장을 표방하는 정부 입장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중 로우지웨이 재정부장은 하반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 로우부장의 발언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7월 말 IPO재개 시기가 가까워진 점도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15일 마카이 국무원 부총리는 중감회와 은감회 등 관리 당국에게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은행은 국무원 비준에 따라 20일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규제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대출금리의 0.7배의 하한규정이 폐지되고, 어음할인율규제도 폐지되며, 농촌신용사의 대출금리 상한선 역시 철폐됐다. 또한 차별화된 주택대출 정책도 엄격히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 S&P 5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 상호 3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 Chart & Table

## >>> 증시 주요지표

### 거래소 시장

구분		7/15	7/16	7/17	7/18	7/19
가격 지표	KOSPI	<b>1,875.16</b>	<b>1,866.36</b>	<b>1,887.49</b>	<b>1,875.48</b>	<b>1,871.41</b>
	등락폭	+5.18	-8.8	+21.13	-12.01	-4.07
	(시가)	1,870.26	1,875.53	1,871.29	1,883.07	1,880.44
	(고가)	1,877.46	1,875.68	1,894.70	1,885.01	1,881.40
	(저가)	1,847.82	1,860.37	1,856.55	1,870.78	1,861.43
	대형주 지수	1,834.09	1,823.47	1,845.36	1,831.45	1,825.29
	중형주 지수	2,135.04	2,135.19	2,156.79	2,153.96	2,161.65
	소형주 지수	1,461.66	1,466.59	1,467.51	1,468.42	1,475.05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하락 (하한가)	438 (7) 357 (1)	406 (5) 395 (1)	501 (0) 297 (1)	322 (4) 474 (1)
	이동평균	(5일) (20일) (60일) (120일)	1,855.45 1,841.27 1,915.95 1,944.64	1,862.65 1,839.55 1,915.39 1,943.56	1,875.32 1,839.51 1,915.07 1,942.78	1,874.89 1,840.76 1,914.22 1,942.04
거래량 지표	이격도	(5일) (20일)	101.06 101.84	100.20 101.46	100.65 102.61	100.03 101.89
	투자심리	(%)	40	40	50	40
	시가총액	(십억원)	1,090,518	1,085,642	1,097,774	1,092,060
	거래량	(천주)	330,028	303,329	382,916	380,291
	이동평균 (5일)		290,656	299,742	322,745	332,510
	이동평균 (20일)		302,868	304,105	309,263	310,489
	거래대금	(십억원)	3,187 3,426 3,756	2,999 3,392 3,734	4,022 3,540 3,769	3,521 3,444 3,725
	개인	(억원)	-628	694	-3,572	1,152
	외국인	(억원)	1,118	304	1,339	-1,093
	기관	(억원)	-392	-1,032	2,301	-38
매매 주체별 순매수	일반법인	(억원)	-99	21	-40	-20
	프로그램매매	(억원)	97	-964	4,553	-3,249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코스닥 시장

구분		7/15	7/16	7/17	7/18	7/19
가격 지표	KOSDAQ	<b>531.67</b>	<b>537.72</b>	<b>541.82</b>	<b>541.56</b>	<b>541.87</b>
	등락폭	-0.80	+6.05	+4.10	-0.26	+0.31
	(시가)	534.23	533.77	539.08	544.02	545.43
	(고가)	535.13	537.72	543.28	544.30	546.08
	(저가)	529.27	533.36	537.92	541.56	540.32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하락 (하한가)	469 (6) 411 (0)	554 (4) 336 (1)	506 (7) 394 (0)	376 (8) 520 (1)
	이동평균	(5일) (20일) (60일) (120일)	525.27 519.75 547.97 539.99	528.95 519.92 547.75 540.16	534.19 520.44 547.75 540.40	537.05 521.24 547.66 540.68
	이격도	(5일) (20일)	101.22 102.29	101.66 103.42	101.43 104.11	100.84 103.90
	투자심리	(%)	50	60	70	60
	시가총액	(십억원)	120,801	122,213	123,251	123,230
거래량 지표	거래량	(천주)	367,031	339,848	326,257	327,813
	이동평균 (5일)		396,589	379,431	360,121	351,956
	이동평균 (20일)		395,337	392,609	389,089	383,224
	거래대금	(십억원)	1,639	1,823	1,910	1,666
	이동평균 (5일)		1,542	1,603	1,676	1,709
	이동평균 (20일)		1,570	1,586	1,610	1,616
	개인	(억원)	310	-361	-162	-22
	외국인	(억원)	-217	223	91	-63
	기관	(억원)	-156	187	143	124
	일반법인	(억원)	68	-44	-68	-38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gt;&gt;&gt; 증시 자금동향

## 역내 펀드 자금유출입

	12년 말	주간증감	7/15	7/16	7/17	7/18
고객예탁금	180,143		180,598	177,395	174,594	173,529
(증감)		+1,128	+8,197	-3,203	-2,801	-1,064
신용융자 (거래소)	22,029		24,110	24,147	24,275	24,414
(증감)		-133	-437	+37	+127	+140
신용융자 (코스닥)	17,095		20,587	20,633	20,801	20,878
(증감)		+377	+86	+45	+169	+77
미수금	1,241		817	880	1,364	1,532
(증감)		+500	-214	+63	+484	+168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737,330		783,606	783,886	783,302	782,586
(증감)		-1,893	-873	+280	-584	-716
국내 풍모 주식형 수익증권(Index펀드 포함)	654,863		689,363	689,647	689,037	688,410
(증감)		-1,864	-911	+283	-610	-627
국내 풍모 주식형 수익증권(Active)	496,600		482,472	482,897	482,873	482,528
(증감)		+253	+198	+424	-23	-345
국내 사모 주식형 수익증권	82,467		94,243	94,239	94,265	94,176
(증감)		-29	+38	-3	+26	-89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83,050		261,514	261,501	261,396	261,268
(증감)		-365	-118	-14	-104	-128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100,435		96,433	96,423	96,394	96,330
(증감)		+817	+920	-10	-29	-64
해외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26,233		32,029	32,013	31,997	31,975
(증감)		-51	+3	-15	-16	-23
채권혼합형 수익증권	192,042		236,955	236,632	236,019	235,579
(증감)		-1,867	-491	-323	-613	-440
채권형 수익증권	468,680		540,676	540,932	539,201	538,906
(증감)		-3,456	-1,686	+256	-1,731	-295
MMF	636,706		811,745	828,067	820,776	810,013
(증감)		-14,048	-12,316	+16,322	-7,291	-10,763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키움증권

## &gt;&gt;&gt; 외국인/기관 주간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 외국인 (KOSPI) (단위: 억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거래대금	종목명	순매도	거래대금
1	삼성SDI	1,219	1,638	삼성전자	1,638	
2	현대차	1,039	428	호텔신라	428	
3	기아차	851	399	LG전자	386	
4	SK하이닉스	558	386	삼성엔지니어링	386	
5	한국타이어	438	351	하나금융지주	351	
6	삼성테크윈	333	248	현대모비스	248	
7	한국전력	283	225	LG디스플레이	225	
8	LG유플러스	214	222	강원랜드	222	
9	POSCO	152	186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86	
10	삼성증공	140	183	오리온	183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기관 (KOSPI) (단위: 억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거래대금	종목명	순매도	거래대금
1	호텔신라	581	880	SK하이닉스	581	
2	LG화학	561	628	LG디스플레이	561	
3	현대중공업	512	539	KT	512	
4	하나금융지주	337	313	한국타이어	337	
5	삼성증공	331	233	LG전자	331	
6	대우조선해양	296	214	삼성전기	296	
7	현대모비스	286	210	KB금융	286	
8	한국전력	247	169	NHN	247	
9	GS	233	138	삼성물산	233	
10	만도	223	137	삼성테크윈	223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외국인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거래대금	종목명	순매도	거래대금
1	셀트리온	163	237	파트론	163	
2	다음	83	195	게임빌	83	
3	서울반도체	63	56	루멘스	63	
4	성광벤드	53	49	아이디스홀딩스	53	
5	인터파크	38	41	위메이드	38	
6	미디어플렉스	38	36	파라다이스	38	
7	솔브레인	32	28	네파스	32	
8	코나아이	19	27	에스엠	19	
9	CJ오쇼핑	18	27	씨젠	18	
10	인터플렉스	18	25	KH바텍	18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기관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거래대금	종목명	순매도	거래대금
1	서울반도체	116	67	매일유업	116	
2	CJ E&M	84	65	성광벤드	84	
3	SK브로드밴드	69	62	골프존	69	
4	모두투어	52	51	나스미디어	52	
5	원의IPS	47	43	CJ오쇼핑	47	
6	아이디스홀딩스	42	40	파라다이스	42	
7	씨티씨바이오	38	26	젬백스	38	
8	KH바텍	38	2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8	
9	메디톡스	37	21	솔브레인	37	
10	톨텍	35	20	게임빌	35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gt;&gt;&gt; Technical Approach

## 전고점 돌파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한진중공업	12,450 액토즈소프트	69,200
LG하우시스	116,500 코나아이	40,000
넥센타이어	17,650 에스에너지	12,150
LS산전	65,900 에머슨퍼시픽	9,200
삼성중공업	39,200 대양전기공업	13,700
웅진케미칼	11,400 골프존	24,000
GS리테일	32,700 이오테크닉스	42,70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24,500 코리아에프티 코텍 신진에스엠	4,430 15,900 17,050

주: 전일 종가가 3개월 이내 최고종가인 종목 중 주가등락율을 상위 종목

## 상한가 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없음	없음	없음

주: 최근 10일 중 첫 상한가 기록 종목

## 이격 확대종목 (단위: %)

KOSPI	이격도 KOSDAQ	이격도
한솔테크닉스	90 태산엘시디	85
쌍용양회	93 오리엔탈정공	88
한국항공우주	94 파트론	89
롯데푸드	94 매일유업	93
에이블씨엔씨	95 녹십자셀	94
강원랜드	95 에스에이엠티	95
한섬	96 플렉스컴	95
현대산업	96 크루셜텍	95
하이트진로	96 씨앤페이지인터	95
오리온	96 이수앱지스	95

주: 20일 이격도 기준 이격확대(이격도 98% 이하) 상위 종목

##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노루홀딩스	14,850 티씨케이	9,120
무학	19,000 나노엔텍	5,110
로엔케이	2,130 LIG에이디피	4,980
대교	7,630 에스엔씨엔진그룹	2,815
상신브레이크	4,860 심텍	8,650
방림	11,050 동양이엔피	18,300
진양산업	2,335 루멘스	10,000
SIMPAC	7,000 테크윙	6,990
기아차	60,700	
현대글로비스	189,000	

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중 주가등락율을 상위 종목

## Stochastic Slow 신호 발생종목 (단위: %)

KOSPI	Slow %K KOSDAQ	Slow %K
한일이화	29 없음	
에스엘	26	
S&T모티브	25	
무림P&P	24	
모토닉	24	
현대위아	24	
농심	22	

주: Slow %K가 20% 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 외국인 지분율 확대종목 (단위: %)

KOSPI	외국인 지분율 KOSDAQ	외국인 지분율
없음	셀트리온 인프라웨어 유아이엘	29.63 10.78 6.73

주: 20 거래일 대비 외국인 지분율 3% 이상 확대 종목

## 거래 급증종목 (단위: %)

KOSPI	거래증가률 KOSDAQ	거래증가률
OCI	791.21 아바텍	657.33
넥센타이어	347.08 SM C&C	442.08
풍산	320.53 디아이디	427.88
휴비스	314.38 오로라	398.77
만도	298.03 에스에너지	397.58
에스엘	278.04 SG&G	311.81
한일이화	218.87 바이오스페이스	293.85
두산엔진	215.16 액토즈소프트	269.84
코오롱	208.31 주성엔지니어링	245.76
베이직하우스	178.56 코나아이	233.04

주: 전일 3% 이상 주가 상승 종목 중 20일 평균대비 50% 이상 거래증가 종목

## 기관 매수세 유입 종목 (단위: %)

KOSPI	주가 등락률 KOSDAQ	주가 등락률
한진중공업	6.41 에스에너지	4.74
휴비스	4.74 알에프세미	4.44
동국제강	4.51 아이디스홀딩스	3.38
만도	4.44 우전엔한단	2.51
대우조선해양	2.13 씨티씨바이오	2.22
LS산전	2.01 태웅	1.85
LS	1.95 서울반도체	1.79
LG생명과학	1.81 오스템임플란트	1.70
현대중공업	1.79 에스엔씨엔진그룹	1.62
한화케미칼	1.62 서부T&D	1.54

주: 최근 10일 중 7일 이상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 중 등락률을 상위 종목

## >>> 아시아 증시 외국인 및 Global Fund Flow 동향

외국인, 지난 주 전반적 매수 우위 (단위: Mil \$, %, pt)

	대표지수 동향		외국인 순매수 금액				
	7월 19일	동락률	7월 12일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누적
한국	1,871.41	-0.2	141.2	183.9	-1,502.5	-4,434.0	-8,256.6
대만	8,062.03	0.0	379.2	1,327.7	-283.1	1,091.0	925.4
인도	20,149.85	0.9	-853.2	-954.5	-2,440.6	2,124.3	10,562.8
태국	1,481.84	-0.4	71.8	140.6	-677.0	-2,148.4	-2,722.5
필리핀	6,621.02	-0.4	21.6	188.9	210.7	397.4	1,212.9
인도네시아	4,724.41	0.1		16.3	-491.0	-2,347.4	-852.9
일본	14,589.91	-1.5	-	4,013.3	15,411.9	54,797.7	94,443.6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일본 1주 자연 데이터

한국 증시(KOSPI)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대만 증시(TWSE)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 증시(SENSEX)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태국 증시(SET)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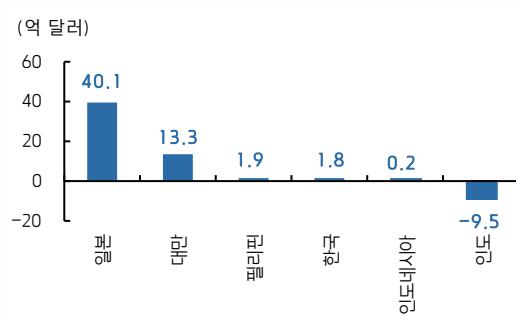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네시아(JCI)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지난주 아시아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 MSCI 주요 지역별 실적전망 변화

세계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b>전체</b>	<b>-1.7</b>	<b>-1.7</b>	<b>0.2</b>	<b>0.0</b>	<b>-2.7</b>	<b>-2.2</b>	<b>5.0</b>	<b>-21.1</b>	<b>-3.2</b>	<b>-4.3</b>	<b>-10.8</b>	<b>13.0</b>	
에너지	-0.4	-1.6	-1.4	-3.0	-2.4	-3.5	-2.0	-43.4	-2.3	-11.8	-25.7	10.3	
소재	-1.5	-3.2	-9.6	-11.4	-5.0	-13.1	-2.8	-48.9	-28.1	-27.9	-23.5	11.9	
산업재	-0.7	-1.4	0.8	1.3	-2.7	-2.9	4.4	-21.3	-4.6	-1.7	-15.5	13.9	
경기소비재	-0.4	-1.7	6.5	6.2	-2.6	4.5	16.0	-10.5	3.5	-2.3	-8.1	14.7	
필수소비재	-1.1	-2.0	-0.3	0.3	-2.7	-2.7	4.7	-38.8	-16.6	-20.5	-10.8	16.8	
의료	-1.3	-1.7	0.1	-0.4	-2.6	-2.4	-1.6	-2.8	9.2	-7.3	5.8	15.4	
금융	-0.6	-1.6	0.6	1.8	-2.4	-1.7	9.2	-17.6	2.7	9.5	1.2	11.3	
IT	-0.4	-1.1	1.5	0.6	-2.1	-1.1	6.7	0.5	5.9	6.8	-15.0	12.9	
통신서비스	1.0	4.2	15.1	35.6	3.2	11.2	25.2	-16.9	-12.4	-25.6	-12.6	13.1	
유트리티	0.0	-1.7	2.9	4.4	-3.0	0.6	7.5	-12.0	3.0	8.2	-16.5	13.7	

한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IT, 에너지, 산업재, 필수소비재, 소재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b>전체</b>	<b>-1.1</b>	<b>-3.5</b>	<b>1.6</b>	<b>-2.0</b>	<b>-5.3</b>	<b>-2.7</b>	<b>8.7</b>	<b>-44.9</b>	<b>-30.4</b>	<b>-35.4</b>	<b>-39.3</b>	<b>7.8</b>	
에너지	-1.6	-2.7	-11.2	-16.3	-7.1	-18.6	0.7	-100.0	-33.3	-100.0	-33.3	7.8	
소재	-1.2	0.3	-8.4	-18.2	-4.2	-16.8	-11.1	-66.7	-37.5	-33.3	-44.4	10.1	
산업재	-1.6	-4.6	-1.2	-10.5	-14.4	-17.7	-20.8	-42.9	-21.1	-55.0	-21.1	10.8	
경기소비재	0.0	-4.1	15.0	-5.9	-4.7	10.9	-1.1	-53.8	-36.4	-9.1	-30.8	7.0	
필수소비재	-1.5	-3.2	-13.7	-17.4	-4.7	-8.8	-3.4	-88.9	-42.9	-80.0	-75.0	15.2	
의료	0.1	1.9	3.4	6.1	0.0	1.8	33.0	50.0	0.0	50.0	-100.0	17.8	
금융	0.0	-1.7	-7.8	-11.9	-4.7	-14.7	-22.8	-41.2	-50.0	-61.1	-70.0	8.7	
IT	-1.7	-2.2	4.6	16.0	-2.3	2.6	42.4	-11.1	-25.0	42.9	-12.5	6.4	
통신서비스	0.4	12.7	10.8	21.1	9.1	3.5	53.5	33.3	0.0	0.0	-33.3	9.6	
유트리티	-0.7	-1.9	-4.4	39.8	-14.0	-26.6	-189.3	0.0	50.0	100.0	50.0	9.1	

미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의료, 유트리티, 필수소비재, 소재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b>전체</b>	<b>0.0</b>	<b>-0.3</b>	<b>3.0</b>	<b>3.9</b>	<b>-1.3</b>	<b>0.8</b>	<b>7.5</b>	<b>-18.4</b>	<b>4.9</b>	<b>-1.7</b>	<b>-12.9</b>	<b>14.3</b>	
에너지	0.0	-0.4	1.5	2.7	-1.1	-0.9	2.1	-63.6	1.8	7.3	-41.8	12.3	
소재	-0.3	-1.4	-1.3	-0.4	-3.4	-6.2	9.7	-62.5	-15.6	-26.5	-8.8	13.7	
산업재	0.1	0.1	2.7	5.6	-0.9	-0.1	8.3	-18.1	-2.8	-26.0	-25.0	14.5	
경기소비재	0.4	-0.5	7.1	8.3	-1.3	6.5	14.0	-1.0	6.1	-7.1	-5.0	17.2	
필수소비재	-0.4	-0.2	2.7	4.8	-1.0	0.2	8.9	-28.9	-6.7	2.2	4.3	16.5	
의료	-0.9	-1.3	1.0	1.8	-2.2	-1.7	-1.5	-9.7	21.0	-23.3	5.0	15.4	
금융	0.1	0.1	5.7	7.8	-0.7	4.0	20.9	-22.6	6.6	18.3	-9.7	12.9	
IT	0.1	-0.4	1.6	-0.7	-1.3	-0.6	0.9	8.5	11.0	6.0	-16.7	13.1	
통신서비스	1.4	2.3	6.6	5.9	0.3	0.8	18.3	-20.0	-10.0	0.0	10.0	17.7	
유트리티	-0.6	-1.2	1.0	1.2	-1.6	-0.3	-0.2	-8.8	11.8	29.4	-29.4	15.4	

중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소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3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b>전체</b>	<b>-0.1</b>	<b>0.2</b>	<b>2.8</b>	<b>6.9</b>	<b>-0.6</b>	<b>0.4</b>	<b>12.1</b>	<b>-20.4</b>	<b>-24.8</b>	<b>-21.7</b>	<b>2.2</b>	<b>7.9</b>	
에너지	-0.4	-1.7	-1.3	-2.4	-1.9	-2.6	1.5	-55.6	-44.4	-55.6	11.1	7.6	
소재	-3.0	-5.1	-11.3	-9.2	-5.9	-14.4	16.4	-75.0	-50.0	5.3	-10.5	7.9	
산업재	-0.5	0.0	-1.9	-0.1	-1.4	-5.7	10.5	-25.0	-20.8	-52.0	12.5	9.5	
경기소비재	-0.1	0.2	3.9	5.1	-1.3	-0.5	19.2	-50.0	-27.8	-29.4	-5.9	10.3	
필수소비재	-0.5	1.1	4.3	1.9	-0.5	-0.5	10.8	-36.4	-72.7	-100.0	0.0	21.6	
금융	0.1	0.8	5.4	11.9	0.0	2.8	14.0	13.5	13.5	2.8	27.3	5.6	
IT	0.1	2.0	6.6	14.1	0.3	0.9	33.5	-20.0	-20.0	-80.0	-60.0	19.7	
통신서비스	0.1	0.4	1.1	1.0	0.4	1.2	5.5	50.0	-100.0	-50.0	-25.0	10.6	
유트리티	0.1	2.3	8.7	21.1	1.6	5.9	35.1	50.0	-25.0	100.0	0.0	11.7	

자료: IBES(2013. 07. 18 기준),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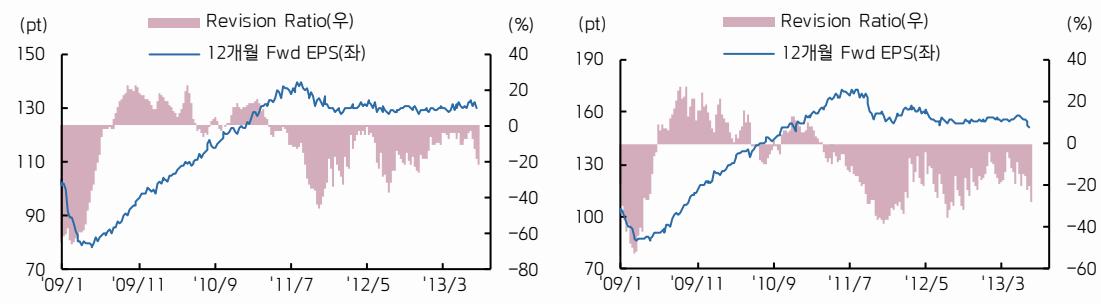
주: Revision Ratio, PER은 12개월 Forward EPS 기준

Revision Ratio = [(12개월 Forward EPS 상향조정 기업 수 - 하향조정 기업 수) / 총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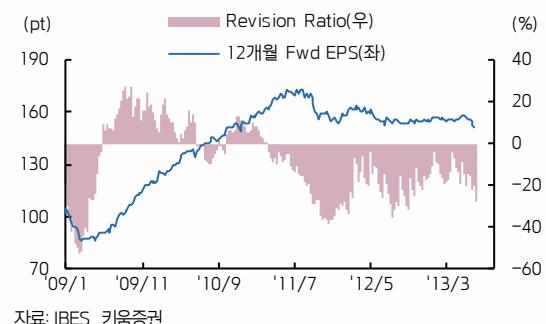
중국 의료 업종은 Data가 없는 관계로 제외

## &gt;&gt;&gt; MSCI 주요 지역별 12M Fwd EPS &amp; Revision Ratio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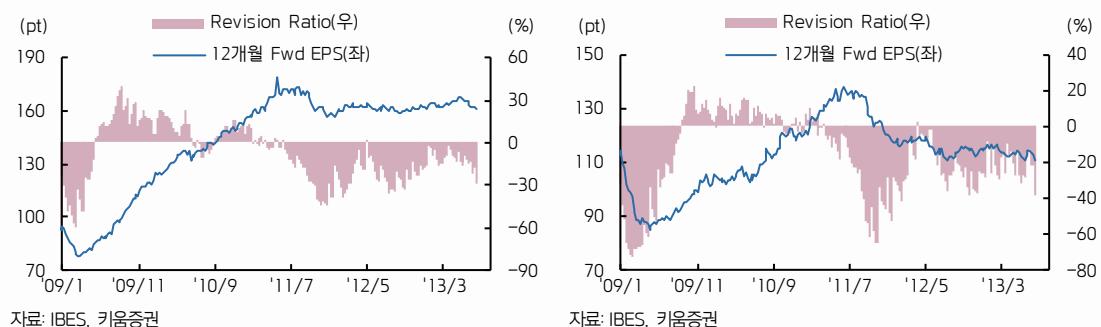
## A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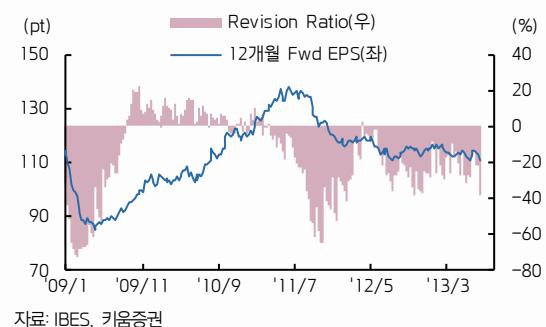
## EMERG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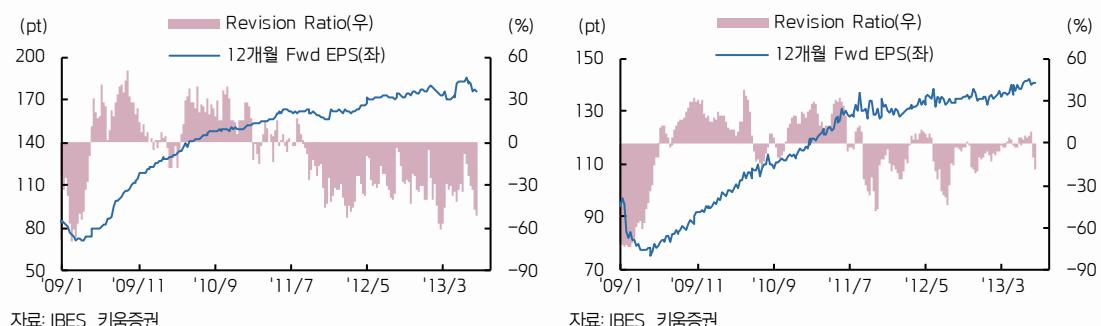
## ASIA-PAC. EX 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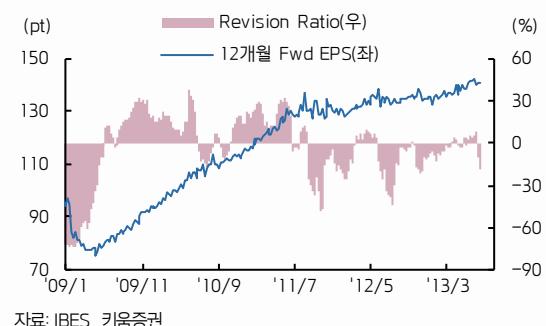
##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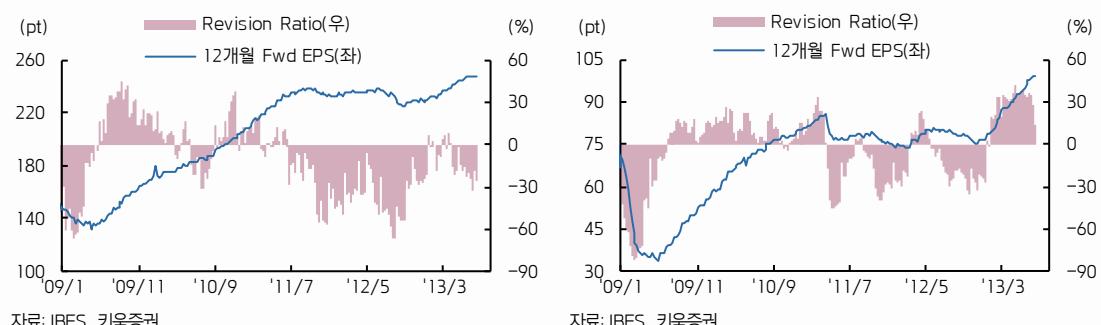
##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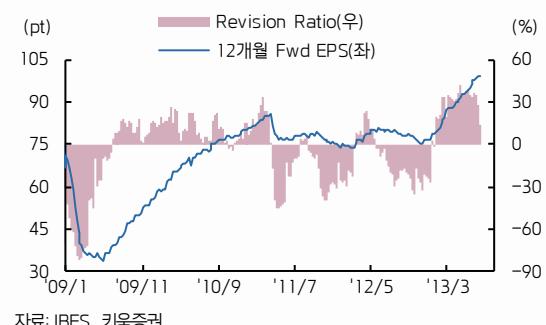
## USA



##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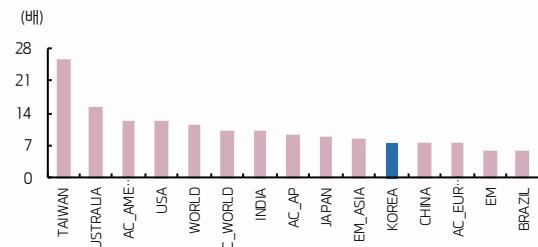


##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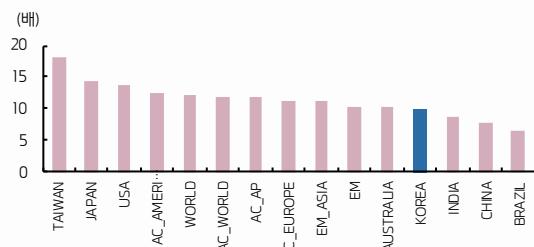


##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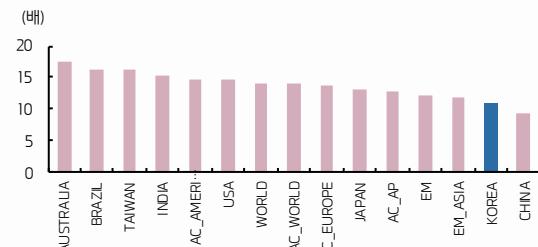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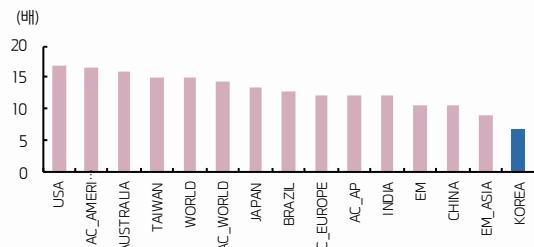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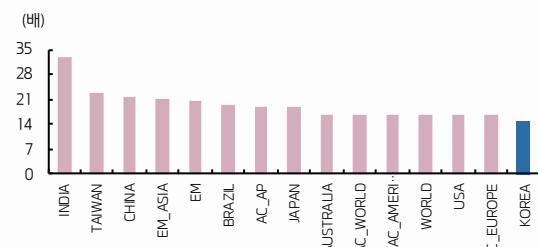
###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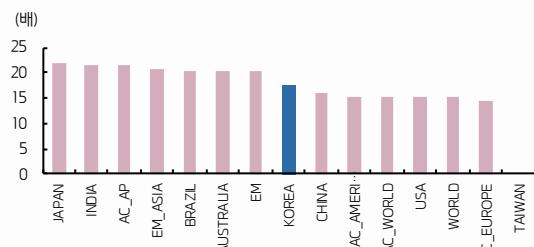
###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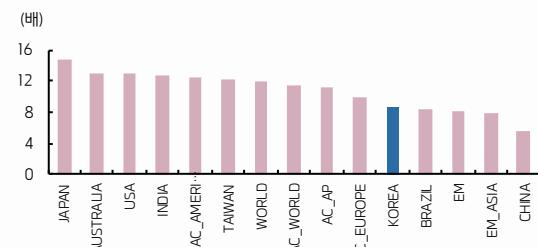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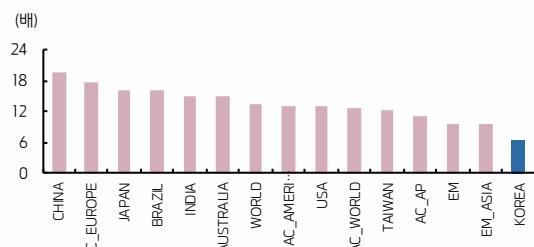
### 의료



### 금



### IT



###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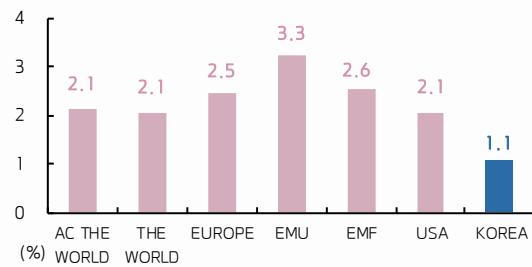
### 유티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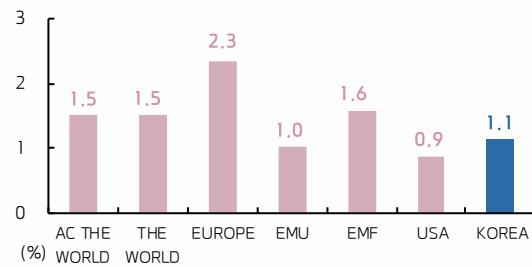
자료: IBES (2013. 07.18 기준), 기음증권  
주: Taiwan 의료/유티리티 업종 진계도지 않음

## &gt;&gt;&gt;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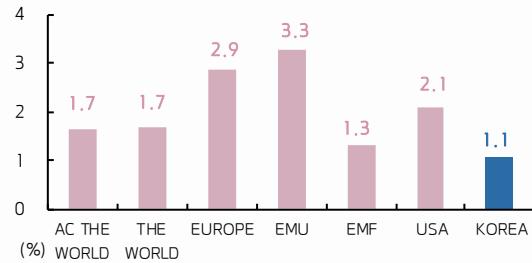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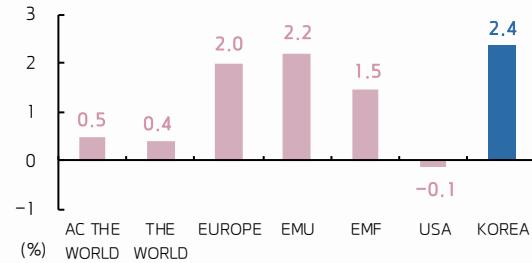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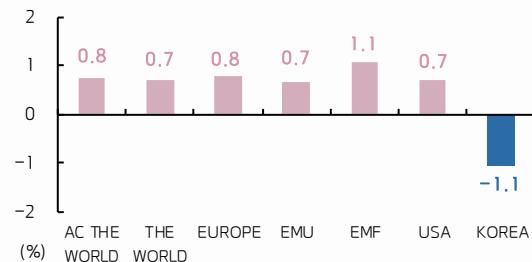
##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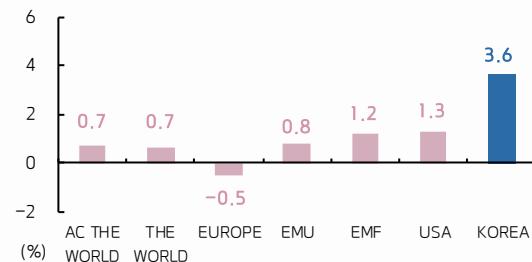
##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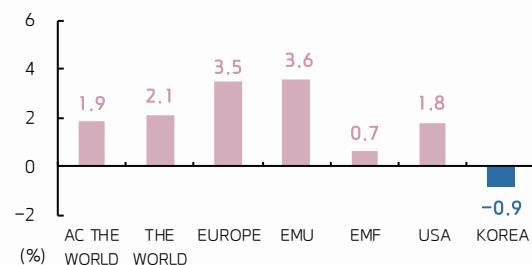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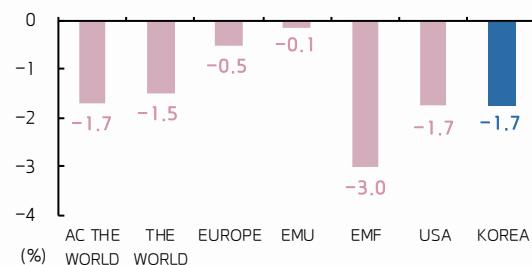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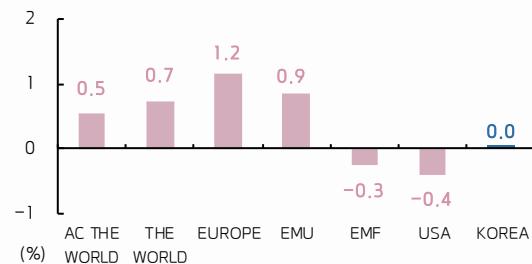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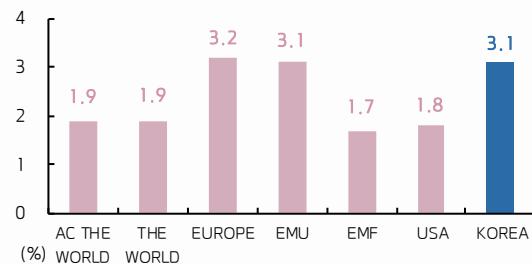
## IT



## 통신서비스



## 유트리티



## >>> MSCI KOREA 주요 시장대비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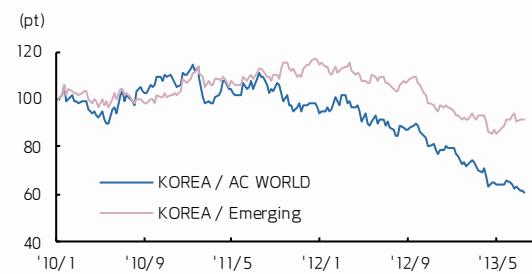
### 에너지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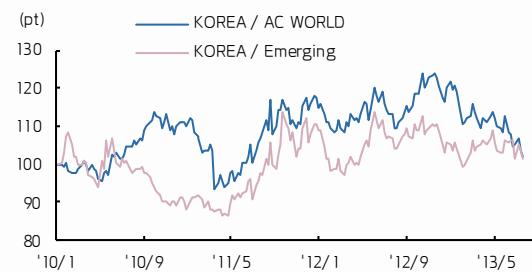
###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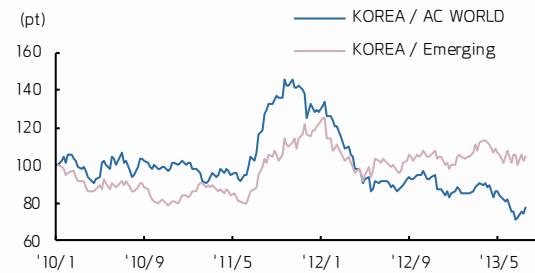
###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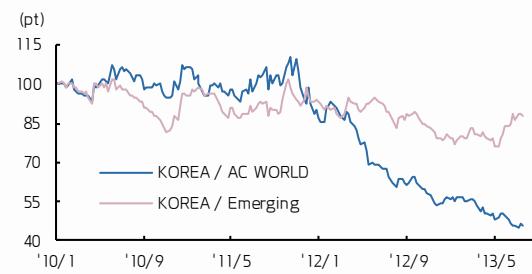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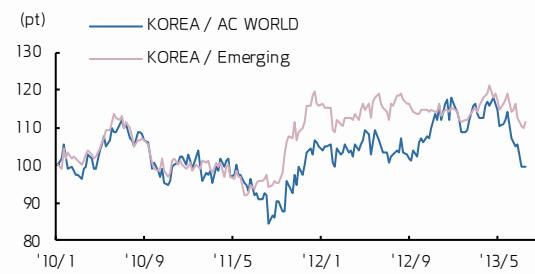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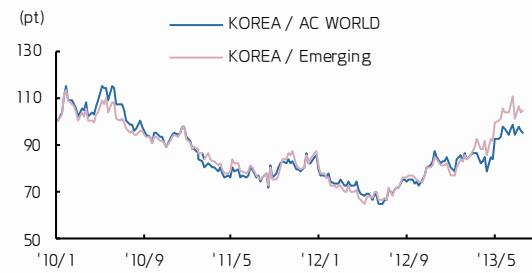
### 금융



### IT



### 통신서비스



### 유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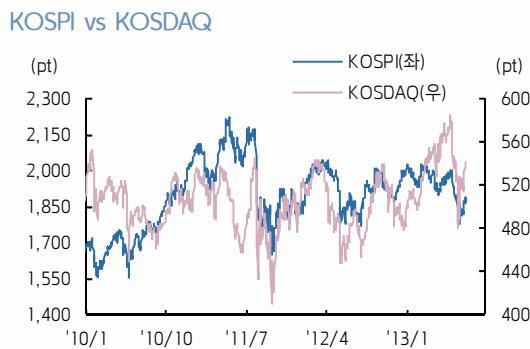
## >>> 해외 주요지수 · 종목 동향

주요국 지수	종가	D-1	D-5	D-20	주요 상품가격	종가	D-1	D-5	D-20
Dow	15,543.74	-0.03%	+0.51%	+5.32%	금(COMEX)	1,292.90	+0.68%	+1.20%	+0.54%
NASDAQ	3,587.62	-0.66%	-0.35%	+6.63%	천연가스(NYMEX)	3.79	-0.60%	+3.98%	-2.27%
S&P 500	1,692.09	+0.16%	+0.71%	+6.54%	알루미늄(LME,3M)	1,817.00	+1.08%	-0.82%	+1.34%
Semiconductor	486.18	-0.21%	-0.70%	+5.75%	전기동(LME,3M)	6,925.00	+0.55%	-0.22%	+1.75%
NYSE	9,618.51	+0.33%	+1.26%	+6.92%	아연(LME,3M)	1,866.50	+0.51%	-1.50%	+1.17%
NASDAQ 100	3,044.93	-1.07%	-1.11%	+5.35%	WTI(현물)	108.05	+0.01%	+1.98%	+13.26%
S&P 100	757.51	+0.07%	+0.61%	+5.84%	옥수수	544	+0.55%	-22.45%	-19.20%
S&P mid 400	1,234.25	+0.13%	+1.07%	+8.25%	설탕(NYBOT/ICE)	16.29	+0.68%	+1.43%	-0.55%
S&P small 600	590.25	-0.02%	+1.09%	+9.08%					
Russell 2000	1,050.48	+0.02%	+1.35%	+9.37%					
영국	6,630.67	-0.06%	+1.31%	+8.41%					
독일	8,331.57	-0.07%	+1.45%	+6.96%					
프랑스	3,925.32	-0.06%	+1.82%	+7.31%					
일본	14,589.91	-1.48%	+0.81%	+12.10%					
대만	8,062.03	-1.62%	-2.33%	+3.45%					
홍콩항셍	21,362.42	+0.08%	+0.40%	+4.81%					
홍콩 H	9,448.51	-0.46%	+0.16%	+1.98%					
상하이종합	1,992.65	-1.52%	-2.30%	-3.88%					
상하이A	2,085.49	-1.52%	-2.30%	-3.88%					
선전A	972.35	-2.21%	-0.90%	-0.77%					
태국	1,481.84	-0.36%	+1.94%	+5.68%					
싱가폴	3,213.26	-0.15%	-0.70%	+2.84%					
인도네시아	4,724.41	+0.08%	+1.97%	+4.63%					
러시아	1,382.33	+0.36%	+2.49%	+10.97%					
인도	20,149.85	+0.11%	+0.96%	+7.33%					
멕시코	39,891.67	-0.88%	-1.09%	+4.88%					
브라질	47,400.23	-0.54%	+4.10%	-1.69%					
한국	1,871.41	-0.22%	+0.08%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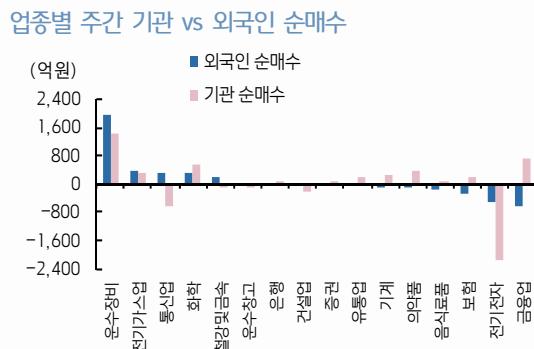
### 다우지수 구성종목

3M	116.19	+0.61%	+0.91%	+6.81%	필라델피아반도체 구성종목 및 주요 기술주	AMD	4.03	-13.15%	-6.71%	+4.13%
Alcoa	8.07	-1.71%	-0.37%	+0.75%		Altera	35.51	-0.42%	+1.31%	+11.84%
Altria Group	37.00	+0.41%	+0.62%	+8.18%		Applied Materials	16.56	0.00%	-0.60%	+9.89%
American Express	74.06	+0.07%	-5.45%	+1.56%		Broadcom	33.69	+0.15%	-3.27%	+0.78%
AIG	46.99	-0.23%	+0.30%	+5.90%		Cree	69.56	+2.34%	-0.10%	+10.52%
AT&T	35.81	+0.20%	0.00%	+4.25%		Intel	23.04	-0.95%	-3.60%	-4.75%
Boeing	106.96	-0.62%	+5.00%	+7.35%		KLA-Tencor	60.65	+0.78%	+0.43%	+11.43%
Caterpillar	85.65	-0.08%	-1.74%	+2.94%		LAM research	50.59	+1.38%	+0.32%	+12.90%
Citigroup	52.35	-0.65%	+3.03%	+9.29%		Linear Tech	39.88	-0.60%	-0.05%	+11.02%
Coca Cola	41.09	+0.69%	+0.15%	+5.01%		Marvell Tech	12.04	+1.43%	+0.25%	+7.79%
Du Pont	57.14	-0.57%	+5.02%	+8.65%		MEMC	9.65	+0.73%	+9.53%	+19.58%
Exxon Mobil	95.17	+0.84%	+1.90%	+6.88%		Micron Tech	13.73	+0.29%	+8.20%	+1.44%
General Electric	24.72	+4.61%	+4.04%	+6.32%		National Semi	45.88	+0.86%	+8.82%	+14.81%
General Motors	36.61	-0.62%	+0.58%	+12.44%		Novellus System	40.39	-0.47%	-6.16%	-10.44%
Hewlett Packard	25.14	-4.52%	-4.01%	+1.70%		Sandisk	62.71	+2.47%	+2.97%	+5.61%
Home Depot	79.89	-0.16%	-0.81%	+8.15%		Stmicroelectron	9.85	+0.41%	+2.28%	+6.26%
Honeywell	46.88	-0.23%	+0.30%	+5.90%		Taiwan Semi	16.49	-1.90%	-10.57%	-5.28%
IBM	193.54	-2.25%	+0.77%	-1.93%		Teradyne	17.85	+0.28%	-3.72%	+4.94%
Intel	23.04	-0.95%	-3.60%	-4.75%		Texas Instrument	29.11	-0.78%	-1.32%	-3.64%
J&J	92.23	+2.28%	+2.49%	+11.63%		Xilinx	45.86	+0.07%	+6.70%	+18.93%
JPMorgan	56.16	-0.37%	+2.16%	+7.01%		Apple	424.95	-1.58%	-0.37%	+1.95%
McDonald's	100.27	+0.09%	-1.29%	+3.60%		Ebay	52.19	-2.49%	-8.51%	+2.84%
Merck	47.79	+0.82%	-1.55%	+3.20%		Cisco	25.82	-0.15%	-0.46%	+5.67%
Microsoft	31.40	-11.41%	-12.13%	-6.28%		Dell	13.14	+0.15%	-1.35%	-1.68%
Pfizer	29.09	+2.11%	+0.97%	+1.68%		Research In Motion	8.97	-1.64%	-2.92%	-35.84%
P&G	81.37	+1.33%	-0.22%	+8.13%		Google	896.60	-1.55%	-2.86%	+1.34%
United Tech	102.48	+1.12%	+2.65%	+10.97%		Nokia	4.02	-0.25%	-3.13%	+4.96%
Verizon	49.95	-0.04%	-0.91%	+2.02%		Oracle	31.86	-0.47%	+1.95%	-4.07%
Wal Mart	78.08	+0.96%	+0.58%	+6.91%		Qualcomm	61.46	+0.56%	-0.90%	+0.89%
Walt Disney	65.16	-1.00%	-2.72%	+5.13%		Yahoo	29.11	-1.85%	+6.90%	+14.83%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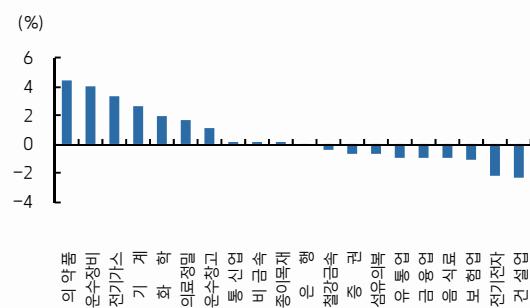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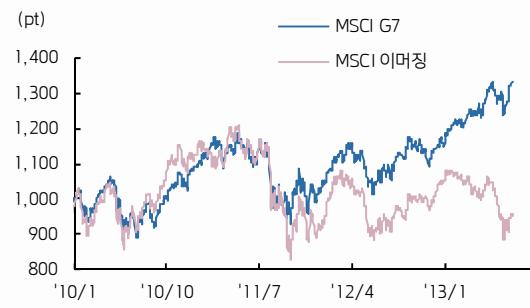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MSCI G7 vs MSCI 이머징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닛케이 225 vs 대만 가권지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원/달러 vs 원/100엔



자료: CEIC, 키움증권

## 엔/달러 vs 달러/유로



자료: CEIC, 키움증권

## 미국채 수익률 2년 vs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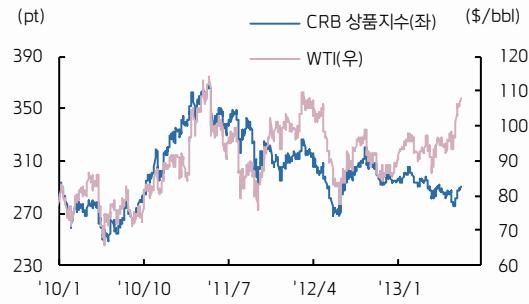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 국고채 수익률 3년 및 회사채 AA- 수익률 3년



자료: CEIC, 키움증권

## CRB 상품지수 vs WTI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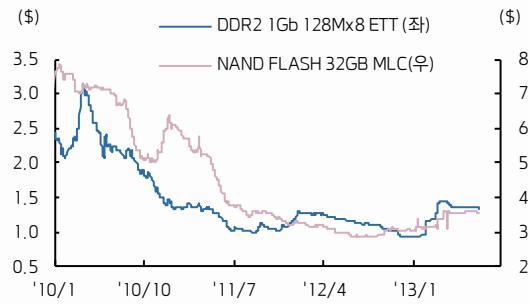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국제 금가격 vs 달러 인덱스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DRAM2 1GB vs NAND FLASH 32GB MLC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LME 전기동 3M vs LME 아연 3M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